

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박은희*, 김혜숙**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목포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Worker's Quality of Life

Eun-Hee Park*, Hye-Suk Kim**

Nursing Department, Kwangju Women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 Mokpo Catholic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이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K지역의 근로자 131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3월 15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삶의 질은 Korean version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t-test, two-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와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 으로 SPSS/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삶의 질,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 모두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삶의 질을 결혼만족도, 우울, 월 평균수입, 배우자 관계가 34.3%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고용스트레스로 인해 가정 생활이 영향 받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삶의 질,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 비정규직근로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quality of life. 131 workers in K are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rch 15nd, 2017 to April 10th, 2017. The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by means of Korean version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Descriptive statics, t-test, two-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8.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As a result of study, it was confirmed that regular workers were higher than irregular workers in the quality of life,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nd self-esteem all. The quality of life was explained by the martial satisfaction, depression, averagely monthly pay, and spouse relationship as 34.3%.

It is necessary to essentially implement the government's support and the corporate co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in order to enhance the life quality of workers. Also, workers need to give value to themselves leading their life and form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ople around them not to let their family life be negatively affected due to the employment stress.

Key Words : Quality of life,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Self-Esteem, Irregular Worker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Gwangju Women's University in 2017.

Received 1 October 2017, Revised 2 Novem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Hye-Suk Kim

(Mokpo Catholic University)

Email: gracekim@mcu.ac.kr

©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해 정부주도 아래 고용유연성을 확대하였다. 고용유연성이란 기업 주도 아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화, 다원적인 저고용 저비용, 일시 고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게 한다. 현재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지 이미 20여 년이 되었으나, 최근 국내 경기가 다시 저성장애 늪에 빠지며,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1,2].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동자는 66.1%, 비정규직 노동자는 33.9%로 추산되고 있으나, 비산출된 비정규직 혹은 청소년 노동자를 추산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저가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더 큰 문제점은 비정규직의 3년 미만 근속기간이 41.5%, 이중 52.9%가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갖는다는 것이다[2], 이는 수입의 불안정화를 가져와 근로자는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 사회적 지위 박탈, 잦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한 자존감 손상, 열등감 경험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다[3]. 또 기업이 비정규직노동자를 값싼 노동력 제공자로 인지하고 언제든지 정규직 노동자를 대체 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고도의 노동강도를 요구당하고 있는 실정이다[4]. 더불어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때에,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점점 고용 자체가 미지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에 대한 압박감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근심, 침울함, 상실,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등에 대항해야 하는 이중고를 경험한다[1,2,5].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많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노출되며 특히 우울이 문제가 된다. 우울은 사회적 고립, 약물남용, 음주, 자살 등과도 연관이 있고, 근로자의 25%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보고가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6]. 직장 내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근로자에게 자아존중감과 사회관계망의 훼손을 가져온다. 자아존중감이 높아야 적응능력, 긍정적인 대인관계형성, 긴장완화 등 일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갖출 수 있다[3,7]. 더불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때 현재의 작업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수 없다[6,8]. 이처럼 비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을 경험하고, 장시간의 노동강도에 노출되어 신체적 피로와 우울을 경험하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느낀다[5,6].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객관적 환경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 기대, 인성 등 주관적 측면 역시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은 소득, 의식주, 교육수준 등 사회물리적 환경에 의해 평가된다[9]. 반면 주관적 평가는 개인마다 삶의 과정 중에 경험하는 만족감, 행복, 사회적 성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끼는 자신의 평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10]. 이런 연유로 최근까지 객관적 요소가 삶의 질의 지표가 되었으나 경제적인 우월과 삶의 질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11]. 특히, 전쟁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12위로 세계적 경제 성장국임에도 불구하고[12],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른 한국인의 삶의 질의 평가지수는 OECD국가 38개국 중 28위로 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계속적으로 점수가 하향 추세이다[13].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고용이 줄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4].

우리나라의 결혼비율을 살펴보면 임금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결혼 비율이 높았고, 소득분위별로 결혼비율이 최대 12배의 차이가 났다. 정규직 남성의 결혼비율은 53.1%, 비정규직 남성의 결혼비율은 28.9%이었다. 이는 비정규직 남성이 가정을 책임질 만큼의 사회적 지위가 확보되지 못해 결혼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되며, 인구절벽과 같은 인구수 저하 등의 사회문제와 연동된다[15]. 또한 비정규직노동자가 이런 문제점을 딛고 결혼에 성공하더라도 불안정한 가정경제 문제, 잦은 취업경쟁에서의 심리적 압박, 정규직 노동자와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등에 의해 가정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감이 줄어들 수 있다[14]. 결혼만족도란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유쾌와 불유쾌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각성에 기인한다[16]. 그러므로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실정이다.

한국인 대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결과를 보인 연구가 다수이나 비슷한 결

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다[6,8,11]. 그러나 삶의 질에서는 연구마다 결과의 차이를 보인다[5,9,10].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객관적인 요소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결혼만족도의 경우 삶의 질과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는 있으나[16], 삶의 질에 직접 요소로 인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향후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우울, 긍정 마인드 등 다양한 요소와 직접적인 연관성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결혼만족도, 우울 등은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동자의 결혼만족도, 우울,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해 향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의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근로자의 삶의 질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우울, 결혼생활만족도를 평가해 근로자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시에 상주하고, 철강업에 종사하는 고용상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표본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을 이용하였으며,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4개로 계산한 결과, 표본수는 129개 이었다.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타락율을 20%로 산정해 170부를 배부하였다.

본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근로자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131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10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하여 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그 후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 응답 소요시간은 1인당 10~15분이었다. 설문지는 17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141부 중 미응답 문항이 많은 10부를 제외하고 131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삶의 질

삶의 질은 The WHOQOL Group(1998)이 개발한 WHOQOLBREF를 Min, Lee, Kim, Suh와 Kim (2000)이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Korean version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신체 영역 7문항, 심리 영역 6문항, 사회 관계 영역 3문항, 환경 영역 8문항, 전반적인 영역에 관한 2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Min 등(2000)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로 나타났다.

2.3.2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이 개발한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전춘애(1994)가 48문항 중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 18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결혼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결혼생활의 일정 시점의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할 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2.3.3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은 Yesavage, Brink, Rose와 Leirer(1983)[19]가 개발한 우울척도를 팽금영(1995)[20]이 수정·보완한 한국형 단축 우울척도(Depression Scale Short-form Korea version, DSSF-K)를 사용하였다. 개발당시 노인우울 측정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적용

대상 확대와 편리성을 위해 15문항으로 재구성되어 여러 나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인 경우 1점, '아니오'인 경우 0점인 양분척도로 한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5점으로 우울 판단기준은 5점을 기준점으로 우울 여부를 판단하며 5점 이상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경향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1이었다.

2.3.4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존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정도와 자아승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2이었다.

2.2 자료분석 방법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및 χ^2 -test로 산출하였다.
- 삶의 질,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증을 위하여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변수간의 교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two-way ANOVA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삶의 질,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정규직 46.57세, 비정규직 37.64세 이었으며, 정규직은 남성이 88.6%, 여성이 11.4%, 비정규직

은 남성이 90.2%, 여성이 7.8%이었다. 대상자의 월수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10년 이하가 대부분으로 최근의 만혼 풍조를 반영하고 있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1)

| Variables | Category | regular workers (n=70) | irregular workers (n=61) | $\chi^2(P)$ |
|---------------------------|-------------------------------|------------------------|--------------------------|--------------------|
| | | M±SD or n(%) | M±SD or n(%) | |
| Age | | 46.57±7.63 | 37.64±7.31 | |
| Gender | Male | 62(88.6) | 55(90.2) | .087 (.769) |
| | Female | 8(11.4) | 6(9.8) | |
| Religion | Catholic | 4(5.7) | 5(8.2) | 5.877 (.118) |
| | Christian | 21(30.0) | 8(13.1) | |
| | Buddhism | 13(18.6) | 11(18.0) | |
| | etc | 32(45.7) | 37(60.7) | |
| Monthly average income | Less than 2.5 million won | 0(0.0) | 13(21.3) | 34.495 (<.001*) |
| | 2.5-Less than 5.0 million won | 29(41.4) | 39(63.9) | |
| | More than 5.0 million won | 41(58.6) | 9(14.8) | |
| Relation ship with spouse | Satisfaction | 54(77.1) | 43(70.5) | .758 (.685) |
| | usual | 15(17.1) | 17(27.9) | |
| | Unsatisfaction | 1(1.4) | 1(1.6) | |
| Wedding period | Less than 5 years | 5(7.1) | 11(18.0) | 4.900 (.086) |
| | 5 years-Less than 10 years | 65(90.2) | 49(80.3) | |
| | More than 10years | 0(0.0) | 1(1.6) | |
|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 34(48.6) | 32(52.5) | .203 (.903) |
| | college | 22(31.4) | 18(29.5) | |
| | More than university | 14(20.0) | 20(18.0) | |

3.2 변수의 정도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검정한 결과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모두 각각 3.0과 10.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의 조건에 충족하였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균 3.82점 이었으며, 하부영역은 전반적 삶의 질, 신체적 삶의 질, 환경적 삶의 질, 사회관계적 삶의 질 순이었으며, 그 중 심리적 삶의 질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결혼만족도는 평균 3.72±0.32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64±0.28점 이었다. 그러나 우울은 평균 9.03±2.23점으로 우울판정 기준 5점 이상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대상자는 우울한 것으로 판정되었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Related Variables (N=131)

| Variables | M±SD | Range | Skewness | Kurtosis |
|----------------------|-----------|------------|----------|----------|
| Quality of life | 3.82±0.41 | 3.80-5.00 | .453 | -.739 |
| Physical health | 3.89±0.49 | 3.43-5.00 | -.335 | .097 |
| Psychological | 3.55±0.54 | 3.00-4.50 | -.332 | -.668 |
| Social relationships | 3.76±0.63 | 3.00-5.00 | -.107 | .481 |
| Environmental | 3.82±0.44 | 3.50-5.00 | 1.072 | 2.132 |
| General health | 3.96±0.47 | 3.50-5.00 | .612 | -.080 |
| Marital satisfaction | 3.72±0.32 | 3.06-4.33 | -.871 | 1.140 |
| depression | 9.03±2.23 | 3.00-13.00 | -.275 | -.940 |
| Self esteem | 3.64±0.28 | 2.70-4.00 | -.826 | .362 |

3.3 고용형태에 따른 변수 차이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상자군을 나누어 변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삶의 질, 결혼만족도,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Variables Between Group according to Employment (N=131)

| Variables | regular workers (n=70) | irregular workers (n=61) | t(P) |
|----------------------|------------------------|--------------------------|-----------------|
| | n(%) or M±SD | n(%) or M±SD | |
| Quality of life | 4.11±0.28 | 3.49±0.26 | 12.885 (<.001)* |
| Physical health | 4.15±0.36 | 3.59±0.44 | 7.878 (<.001)* |
| Psychological | 3.69±0.38 | 3.39±0.65 | 3.272 (.001)* |
| Social relationships | 4.17±0.43 | 3.30±0.47 | 10.870 (<.001)* |
| Environmental | 4.06±0.28 | 3.55±0.44 | 7.842 (<.001)* |
| General health | 4.22±0.35 | 3.67±0.42 | 8.112 (<.001)* |
| Marital satisfaction | 3.84±0.27 | 3.58±0.31 | 5.034 (<.001)* |
| Depression | 8.24±2.48 | 9.93±1.50 | -4.649 (<.001)* |
| Self esteem | 3.64±0.29 | 3.63±0.26 | .227 (.326)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삶의 질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wo-way ANOVA를 이용하여, 고용형태와 일반적 특성 간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형태에서는 모두 주효과로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 특성은 월평균 수입, 배우자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Table 4> Difference in Life of Quality Between Group according to Employment (N=131)

| Variables | Category | quality of life | | F(p)/seffes |
|---------------------------|--|------------------------|--------------------------|-----------------|
| | | regular workers (n=70) | irregular workers (n=61) | |
| | | M±SD | M±SD | |
| Sex | Male | 4.11±0.29 | 3.47±0.26 | .205 (.649) |
| | Female | 4.06±0.17 | 3.63±0.15 | |
| Religion | Catholic | 4.00±0.05 | 3.66±0.87 | 151.42 (.052) |
| | Christian | 4.20±0.36 | 3.56±0.21 | |
| | Buddhism | 4.04±0.21 | 3.55±0.44 | |
| | etc | 4.08±0.25 | 3.48±0.28 | |
| Monthly average income | Less than 2.5 million won ^a | | 3.69±0.77 | 5.160 (.007*) |
| | 2.5-Less than 5.0 million won ^b | 4.14±0.36 | 3.43±0.27 | |
| | More than 5.0 million won ^c | 4.08±0.20 | 3.43±0.23 | |
| Relation ship with spouse | Satisfaction ^a | 4.15±0.30 | 3.53±0.26 | 60.931 (>.001*) |
| | usual ^b | 3.96±0.10 | 3.40±0.26 | |
| | Unsatisfaction ^c | 4.16±0.00 | 3.40±0.00 | |
| Wedding period | Less than 5 years | 4.15±0.30 | 3.53±0.26 | .374 (.689) |
| | 5 years-Less than 10 years | 3.96±0.10 | 3.40±0.26 | |
| | More than 10years | 4.16±0.00 | | |
|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 4.13±0.31 | 3.53±0.24 | .336 (.853) |
| | college | 4.08±0.21 | 3.49±0.26 | |
| | university | 4.08±0.31 | 3.37±0.46 | |

3.5 결혼만족도와 우울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교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결혼만족도의 평균 3.72, 우울 9.03을 기준으로 두 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two-way ANOVA를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F=18.929, p<.001), 우울 (F=15.811, p<.001)로 삶의 질에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61, p=.689)<Table 5>.

<Table 5>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by independent variables (N=131)

| Source | Sum of Squares | Degree of freedom | Mean square | F(p) |
|----------------------|----------------|-------------------|-------------|----------------|
| Marital satisfaction | 2.511 | 3 | 2.511 | 18.929 (<.001) |
| depression | 2.098 | 1 | 2.098 | 15.811 (<.001) |
| Interaction | .021 | 1 | .021 | .161 (.689) |
| Residual | 16.850 | 127 | .133 | |
| Adj. Total | 22.109 | 130 | | |

3.6 변수간의 상관관계

삶의 질, 결혼 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과 결혼만족도($r=.372, P<.001$)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삶의 질과 우울($r=-.404, P<.0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 on between Variables (N=131)

| Variables | 1 r(P) | 2 r(P) | 3 r(P) | 4 r(P) |
|----------------------|------------------------|------------------|-----------------|-----------|
| Quality of life | 1 | | | |
| Marital satisfaction | .372** ($<.001$) | 1 | | |
| Depression | -.404** ($<.001$) | -.182* (.037) | 1 | |
| Self esteem | .038 (.665) | .011 (.900) | -.121 (.169) | 1 |

** $P <.005$, * $P <.01$

3.7 삶의 질의 예측 변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결혼만족도, 우울과 일반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월평균수입과 배우자 관계를 더미처리 한 후,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정규분포와 등분산이 확인되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946-0.999 으로 0.1 이상이 나왔으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1.05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독립변인으로 만족하였다.

삶의 질은 결혼만족도($\beta=.309, p<.001$), 우울($\beta=-.348, p<.001$), 평균 월수입($\beta=.179, p=.018$), 배우자관계($\beta=-.239, p=.002$)가 더해져 33.9%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 7>.

<Table 7> Correlation on between Variables (N=131)

| Variables | $\beta(p)$ | R ² | Adj. R ² | F(P) |
|---------------------------|----------------------|----------------|---------------------|-----------------------|
| (Constant) | | | | |
| Marital satisfaction | .326 ($<.001$) | .343 | .339 | 10.622 ($<.001$) |
| Depression | -.283 ($<.001$) | | | |
| Monthly average income | .179 (.018) | | | |
| Relation ship with spouse | -.239 (.002) | | | |

4. 논의

본 연구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결혼 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근로자를 위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정규직 노동자 46.57세, 비정규직 노동자 37.64세로 금융위기 이후 고용유연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선행연구의 정규직 41.05세 비정규직 49.47세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11],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남성이 90%에 육박했다. 평균월수입의 경우 정규직은 500만원 이상이 58.6%, 비정규직은 250만원 이하가 21.3%로 월평균수입의 경우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자는 비정규직의 경제적 보안을 위해 동일임금, 최저 임금 상승 등을 주장한다[5]. 배우자 관계에 대해 정규직은 77.1%가 만족에 비정규직은 70.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은 5-10년 사이가 가장 많아 정규직은 90.2%, 비정규직은 80.3%이었다. 이것은 대상자의 평균 나이를 고려해 볼 때, 대상자들의 만혼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 세대의 인구수와도 연동되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의 평균점수는 3.82점으로, 선행연구 3.46점과 유사한 수치이다. 결혼만족도는 3.72점으로 선행연구의 남성 3.74점, 3.42점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대상자가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졌기에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선행연구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은 여성이 가정, 양육, 일을 양립시켜야 하는 과업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지적한다[17]. 대상자의 우울은 9.03점으로 우울 판정기준 5점보다 높은 수치이었다. 이에 선행연구자는 고용형태와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며,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 한 시점에서만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이 지속될 때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을 보고하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시한다[5]. 그러므로 근로자의 우울을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하고 우울관리 프로그램의 시도 등 다양한 국가적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3.64점으로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의 3.61점과 비슷한 수치이다. 또

연령, 결혼유무, 학력, 근무부서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한다[18]. 선행연구자는 근로자의 성공적인 직무능력과 역할수행에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함을 보고하며, 자아존중감이 손상받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를 요구한다[5].

삶의 질에서 정규직은 4.11점, 비정규직은 3.49점으로 정규직의 삶의 질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정규직 3.46점, 비정규직 3.30에 비해[11] 본 연구의 정규직이 삶의 질이 높았다.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사회 환경이 정규직이 0.87점이나 비정규직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하부영역을 편차가 큰 순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 전반적 영역, 환경적 영역 순이었으며 0.5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보여 비정규직의 삶의 질은 모든 영역에서 정규직에 비해 낮게 측정된 것으로, 이것은 선행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11]. 또한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 역시 큰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은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높았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교육기간이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전문직일수록 삶의 질이 높았음을 보고했다[11,19].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교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만족도와 우울은 주효과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교호작용은 없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질과 결혼만족도($r=.372, P<.001$)는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혼($r=.163$)일 때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와 상통하는 것으로, 본 연구가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선행연구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외에도 선행연구자는 교육년수($r=.246$), 관리직($r=.179$), 500명 이상 사업장($r=.184$), 가족의 수입($r=.477$), 여가활동($r=.532$), 주거환경($r=.570$), 가족관계($r=.579$), 친인척 관계($r=.610$), 사회적 친분관계($r=.652$), 주관적 건강상태($r=.370$)가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11]. 삶의 질과 우울($r=-.404, P<.0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격계 전환과 삶의 질이 상관관계가

없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19].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인간의 죽음과 장애에 가장 큰 변수로 우울을 지적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평균 9.03점의 높은 우울 점수를 나타낸 것과 같은 결과로 국내의 우울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4]. 더욱 심각한 것은 우울이 젊은 근로자 집단에서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기반이 되고, 생산력의 원천인 젊은층의 우울은 미취업, 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무관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직위가 낮을수록 높아진다[5]. 또 사회적 배제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로 발전 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 개인 사업장의 우울예방 프로그램, 미취업자를 위한 지지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우울, 월평균 수입, 배우자 관계가 삶의 질을 34.39%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직 근로자대상의 연구에서 정신사회적 요소인 우울과 자기효능감이 37% 설명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특히, 우울은 개인적 특성 뿐 만 아니라 근로자가 처해있는 직업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우울은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질 영향 요소를 통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20].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이 반영된 선행연구에서 인구학적 특성인 나이, 성, 결혼유무, 교육수준, 월평균 수입이 삶의 질을 10%로 설명한다[20]. 또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낮거나 교대근무를 하거나 질환을 가질 경우 근로자의 삶의 질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다[11,19]. 그러므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선행요소로 알려진 우울, 결혼만족도, 월평균 수입, 배우자 관계 등 향상에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상호협동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한지역의 한정된 직업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추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 업무에서의 차별,

근로자 복지의 배제 등이 발생하므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 소지가 있어 더욱 각별한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가 미약하나마 노동현장의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요소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삶의 질,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우울은 낮게 측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에 도움을 줄 정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기업 역시 이에 호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을 월평균 수입, 배우자 관계, 결혼만족도, 우울이 34.3%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삶의 질은 자신이 부여한 가치와 목표를 향한 행동의 실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funded by Kwangju Women's University.

REFERENCES

[1] Armstrong, P., A. Glyn, J. Harrison, "Capitalism Since 1945", Oxford UK and Cambridge USA: BLACKWELL, 1991.
 [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3] Y. S. kim, "The size and actual condition of

irregular workers in 2011" Labour Society Bulletin, Vol. 93 pp.10-46. 2004.
 [4] C. K. Park,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y and the Change of the Workers' Quality of Life in Korea" Korea Journal of Society, Vol. 35 No. 6. pp.79-104. 2001.
 [5] E. H. Chung, I. H. Song.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Depressive Mood among Workers :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Disposable Incom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35. pp. 61-82. 2016.
 [6] J. M. Woo, M. N. Ha, D. S. Lee. "Effects of Cognitive Characteristics on Job Stres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2. No 1, pp. 29-50, 2002.
 [7] C. S. Lee, J. Y. Park, H. Y. Jang,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 37-44. 2016.
 [8] S. C. Choi, H. W.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Employees' Socio-emotional Problems on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7, No. 4, pp. 177-196. 2005.
 [9] K. G. Kim. "Educational Attainment and Quality of Life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48, pp. 1-28, 2013.
 [10] S. B. Park.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and comparison method" Korean Policy Science Review Vol. 7 No. 3 pp. 52-74, 2003.
 [11] S. B. Shin. "Differences in The Job Stress and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s between Irregular and Regular Workers in Korea" Korean Conflict Resolution Research, Vol. 16, No. 1 pp. 83-111, 2008.
 [12] http://www.mosf.go.kr/%20nw/nes/detailNesDtaVievw.do;jsessionid=2DyJgmd1D+VtC2aSzIxpui+s.node20?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003699&menuNo=4010100
 [13] <https://knoema.com/SDSNWHP2016/world-happiness-report-2017?country=1001330-south-korea2017040600303.html>
 [14] J. G. Park.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y and

the change of the Workers Quality of Life in Korean” Journal of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35, No. 6, pp.79-104, 2001.

[15] <http://v.media.daum.net/v/20161113153438050>

[16] Y. H. Lee, Y. J. Kim, S. Z. Oah.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0, No. 14, pp. 447-460, 2005.

[17] E. O. Park. “Job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Employer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2, No. 3, pp. 661-669, 2001.

[18] H. J. Song, S. M. Lee. “The Effects of Hospital Nurse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 on Self-Leadership and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2, No. 3, pp. 220-229, 2016.

[19] D. S. Ko, D. J. Lee. T. S. Ko. “Changes in job stress, self-efficacy,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degre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for white-collar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935-2944, 2013.

[20] W. J. Hwang, Y. H. Park, “Factors Affect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n Korean Blue-collar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4 No. 2, pp. 94-102, 2015.

박 은 희(Park, Eun Hee)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5년 5월 ~ 2001년 1월 : 삼성서울병원 재직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목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임상교육, 성인건강문제, 지역사회건강문제, 보건교육 및 연구

· E-Mail : juliana@kwu.ac.kr

김 혜 숙(Kim, Hye Suk)



· 2004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8년 5월 ~ 1998년 3월 : 조선대학교병원 재직
· 1998년 3월 ~ 현재 : 목포가톨릭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임상교육, 학생건강문제, 심폐소생술

· E-Mail : gracekim@mcu.ac.kr